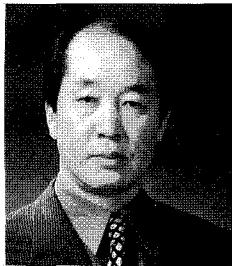


계란의 우수성 홍보에 주력...



이영재
광주채란분회장

정 보화 시대에 걸맞지 않게 우리 양계업계는 난가하락 등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대부분의 양계인들은 왜 이러한 어려움을 겪어야 하며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1980년대 후반부터 정부의 시설보조금으로 설치한 직립식 케이지는 생산자들간에 닭마리수 늘리기 경쟁이라도 하듯이 시설이 늘어났고, 이는 많은 양의 계란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그 이후 국민소득 증가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계란이 콜레스테롤이 많다는 잘못된 홍보로 인하여 계란소비량은 위축되었고 생산량은 과잉되어 생산자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농림부와 협회간의 협조로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등 계란 소비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통이 바로잡혀야 생산자들이 마음놓고 생산에 힘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생산자들의 영향력을 키워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직판체제로 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 특히 축협을 중심으로 판매장을 넓혀, 가격현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지난해부터 외국계란이 수입되고 있는데, 국내의 계란과 품질 차별화에 힘써야 한다.

즉, 정부는 통관시 원산지표시를 계란에 부착시켜 유통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통관 자체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현재 계란유통 시장이 판난(30개)위주로 유통되고 있으나, 전체유통 단위가 10개들이 포장난으로 유통될 경우, 수입란은 과중한 포장비, 수송비와 신선도 부담으로 판매가격이 높아지면서 국내 시장에 발불이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생산자들은 깨끗하고 청결한 계란 생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유통기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자연히 외국산 보다 국내산을 선호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정책과 지원이 적절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생산자 스스로의 자구노력(노계의 도태 등) 등이 수반된다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지금의 기나긴 불황의 시간이 결코 길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양계**